

사회

# 광주시청서 공무원 대낮 흥기 피습

## 토지 보상 불만 민원인 사무실 찾아와 칼부림 난동

대낮에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흥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광주서부경찰은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박모(5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0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흥기로 공무원 오모(46·시설 6급)씨의 왼쪽 허벅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깊이 6~7cm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박씨가 만취 상태에서 주머니에 흥기를 소지한 채 광주시청

을 찾아갔으며 오씨가 안보이자 사무실에서 5분여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담당공무원인 오씨를 발견하고 다른 시청 직원들의 만류에도 흥기를 휘둘렀다고 전했다.

박씨는 놀란 공무원들이 옆 사무실로 대피하자 다시 찾아가 20여 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Taser Gun·전기충격총)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시청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박씨가 지난 13일에도 사무실을 방문해 흥기를 보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마트 등을 경영하면서 빚을 지게 되자 전 부인(53) 소유 1000여평의 토지를 담보로 용자

를 받으려고 했으나 이 땅이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이면서 용자가 어렵게 돼 최근 수차례에 걸쳐 광주시민에 반대 의사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토지 감정가도 자신의 생각보다 낮게 책정돼 흥기를 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토지 감정가와 관련해 강연대 광주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 700여평의 땅이 300평도 안되게 줄었는데 누구인들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광산구 61만1000㎡ 규모의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환지공람을 마쳤지만 일부 주민들이 토지 감보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자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감보율 =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도로·공원·학교 부지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유자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내놓아야 하는 비율. 광주시의 ‘하남 제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평균 감보율은 48.9%로, 이번 사건 피의자 박모씨 소유 토지의 감보율은 이보다 높은 63%였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설을 앞두고 소비량이 늘어날 한우 둔갑판매 등을 막기위해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농축산유통 담당직원들이 문화동의 한 식육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7일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흥기를 휘두른 박모(오른쪽)씨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누가 밥에 농약 넣었나”

### 함평 경로당 비빔밥 사건 고의 투여 과정 수사 집중

지난 5일 함평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독극물 비빔밥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날 남겨 둔 밥에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함평경찰은 17일 음식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간 감정결과 피해자들이 남긴 밥에서 농약 성분인 메소밀이 검출돼 고의로 음식물에 농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충제 성분인 메소밀이 밥에서만 검출되고 나머지 상추겉절이, 고추잎무침, 간장 등 비빔밥의 재료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특색 탓에 조미료로 잘못 알고 음식에 넣었다가 변을 당하지만, 흰밥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점심 식사 인원이 많아 전날 밥은 그대로 두고 새로 밥을 지어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전날 남은 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 이 밥에 메소밀이 섞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점심 때 먹다 남은 밥에 누군가 농약을 고의로 넣었을 것으로 보고 마을 주민 50여명을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원한 관계, 사건 당일 행적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지문을 남기지 않은 메다 국과수 분석 자료 외에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자칫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5일 오후 6시께 함평군 월야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6명이 비빔밥 등을 먹고 복통 증세를 보여 다음날 정모(여·72)씨가 숨지고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중국산 고춧가루 12t 학교급식 등에 공급 가공업체 대표 구속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학교급식 업체 등에 공급한 나주의 한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7일 중국산 고추나 국산 고추와 중국산을 혼합한 제품을 ‘청결 고춧가루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해 학교급식 업체 등 전국 77곳에 관 가공업체 대표 김모(48)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2억54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12t을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병충해 등으로 품질이 심하게 떨어지는 국산 건조고추와 중국산을 혼합해 학교급식, 군납업체, 요양병원, 유명 브랜드 김치 제조업체 나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10년만에 진실은 밝혀졌지만...

2000년 특허소송 위임 변리사 재판 불참 손해배상 과정 공갈 혐의 8개월 옥살이 재심 신청 무죄... “이미 내삶 엉망진창”

“감찰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기소하고 1심 재판부부터 대법원까지 검증도 제대로 안하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제 삶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1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17일 기자와 통화한 오길식(57)씨는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지난 2001년 공갈·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방법원 1실에서 법정 구속된 뒤 확정판결을 거쳐 2007년 8개월 동안 수감생활까지 했다.

광주에서 사업을 하던 오씨의 ‘악몽’은 자신이 수임료를 주고 특허소송을 위임한 변리사 A씨가 재판에 불참, 패소하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는 A씨에게 “변리사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며 1억22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이에 앞서 8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저는 A씨에게 소송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해 수임료 250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상의도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다. 그로 인해 실제로 3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고요. 너무 화가나 A씨를 재근했는데 도리어 A씨는 수임료를 모두 안 취서 불참했다며 저를 공갈·강요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오씨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됐다. 변호사들이 1심 재판정에 섰다가 오씨는 법정구속됐고 끝내 ‘역할함’은 풀 수 없었다.

진실은 그가 실형을 살고 나와 A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뒤에 밝혀졌다. 사실 오씨의 특허소송을 진행하

## 학교폭력 피해 초등생 절반 “그냥 참는다”

“일 커질 것 같아서 도움 요청 안해” 2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

초등학교 고학년생 4명 중 1명이 학교에서 놀림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지만 피해학생 중 절반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충격과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 5개 초등학교 4~6학년생 137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의 25%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안 좋은 소문이나 기분 나쁜 말로 괴롭힘’, ‘때리거나 밀면서 괴롭힘’, ‘욕을 하며 놀림’이 각각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쾌한 말이나 행

동(성적인 놀림)’이 9%, ‘물건이나 돈을 빼앗으며 괴롭힘’이 5%였다.

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한 학생은 53%,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47%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9%), ‘대단치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16%), ‘보복당할 것 같아서’(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부모(45%), 교사(28%), 친구(21%) 순이었다. 어린이재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문의는 재단 아동폭력예방 홈페이지(www.korea-cap.or.kr)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인형뽑기 게임기서 상품 상습 절도

○인형뽑기 게임기에 열광한 60대가 상습적으로 게임기에서 상품을 훔쳐오다가 경찰서 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염모(63)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옆에 설치된 인형뽑기 게임기에서 철사를 이용, 시가 2만3000원의 지갑을 꺼내는 등 지난달부터 총 9차례에 걸쳐 21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염씨는 한 번에 2만~3만원을 쏟아 부을 정도로 인형뽑기를 했지만 원하는 만큼 인형이 뽑아지지 않아 함정이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평론·명작면담**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